

‘관피아 척결’ 광주지검 사상최대 수사팀 구성

〈관료+마피아〉

검사 10명·수사관 41명 등 53명 참여 특별수사본부 꾸려 지역 공기업 집중 점검...“공무원 의식 바뀔 때까지 조사”

“공무원 의식이 바뀔 때까지 할 겁니다.”

광주지검이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에 나서면서 관료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를 겨냥한 강공(強攻) 발언에다, 검찰도 사상 최대 규모로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리는 등 의지를 보이면서다.

광주지검(검사장 변찬우)은 22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민관 유착 및 고질적 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의 경우 이두식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특수부장·형사 2부장 등 검사

10명, 수사관 41명 등 53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고 순천지청도 별도 수사본부를 설치, 수사에 들어간다.

광주지검 검사 58명 중 10명이 참여해 만들어지는 수사본부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는 게 검찰 안팎의 설명이다. 대통령 ‘관피아 문제 해결’ 발언이 아니더라도, ‘검풍’(檢風)의 위력이 미풍(微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의식이 바뀔 때까지 할 것”, “세월호 참사 전·후가 다른 사회”라는 발언도 이 때 나왔다.

검찰은 감독기관의 공무원이 퇴직 후 산

광주·전남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보니

광주·43개 기관 임원 106명 중 33명이 공무원 출신
전남·출연기관 19곳 중 5곳 퇴직공직자가 수장

- 임기 : 통상 2~3년
- 연봉 : 7000만원~1억3000만원
- 업무추진비 : 매월 수백만원



하기관 또는 관련 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영향력을 행사하고 감사·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의 산하기관 및 관련 업체가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선박, 철도, 원전 등과 관련된 공공인프라 분야에 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광주지검 범죄신고 전화(1301)로도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상가 들이받은 버스 22일 오후 1시20분께 보성군 별교읍 선근삼거리에서 D고속 직행버스(운전기사 신모씨·58)가 2층짜리 조립식 상가를 들이받아 119 구조대가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객 이모(여·78)씨가 숨졌으며, 운전기사 신씨 등 승객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잠적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신고보상금 5000만원

장남은 3000만원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정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중 2차장검사)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유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요청해 유씨에게 5000만원, 장남 대군(44)씨에게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고 검거 경찰관에게는 1개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현상수배해 하루라도 더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신병 확보와 별도로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에도 나섰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물론 국제정보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씨 일가 재

산적 및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검찰은 재산추적팀을 확대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21일 저녁 집행 불능 보고서와 함께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씨에 대한 심문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유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근거로 유씨 부자의 행방을 계속 뒤쫓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청해진해운 대표 주중 기소

광주지법에서 재판 열릴 듯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재판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정 합동수사본부는 22일 김 대표 신병을 조만간 목포교도소로 다시 이감해 관련 수사를 벌인 뒤 이번 주 기소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경영 관련 비리)과 수사본부(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사를 받아와 기소 주체를 놓고 관심이 쏠렸다.

광주지검은 수사본부가 김 대표 신병을 목포로 넘겨받아 세월호 관리상황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남편과 새끼를 잃은 암컷 기린 ‘아린’이 광주 우치동물원 우리에 애처롭게 홀로 남아 있다. 아린의 남편인 밀레린과 새끼 기린은 2011년 6월과 12월 잇따라 죽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짝 없어 슬픈 기린 ‘아린’

광주 우치동물원 최고 스타 구제역에 해의 구입 막혀 “올해 꼭 새 짝 구해줄 것”

“허전하다 못해 가슴이 뻐근해요...하루빨리 새로운 짝을 찾아주세요.”

광주우치동물원 최고 스타 암컷 기린 ‘아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

키 7m·몸무게 900kg의 ‘아린’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치 동물원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관심과 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람객들의 큰 사랑도 아린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다.

함께 지내던 남편과 자식을 잃은지 36개월이 지나도록 독수공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린’은 지난 2010년 3월 29일 남편인 수컷 ‘밀레린’(당시 11살) 사이에 몸무게 45kg·키 1.5m의 암컷 새끼를 출산한 뒤 화목한 가정을 이뤄 지냈으나 이듬해 남편이 죽는데 이어 딸마저

잃어야 했다.

관람객들이 무심코 던져준 비닐봉지·노근 등을 먹은 탓이다.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은 뒤 36개월간의 독수공방으로 지친 ‘아린’이 지름시름 앓자, 우치동물원 측은 이달 안에 ‘아린’에게 새 짝을 구해줄기로 마음 먹고 짝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우치동물원의 계획과 달리 ‘아린’의 짝 구하기가 늦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해외 동물 구입 판교가 막혔기 때문이다. 우치동물원은 에버랜드 측으로부터 수컷 기린 한 마리를 구입해 들여올 계획이었으며, 에버랜드는 우치동물원에 기린 한 마리를 주는 대신 해외에서 기린을 사올 예정이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애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예산 1억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꼭 아린에게 새 짝을 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양수 장성군수 부인 영장

선거 도와달라며 돈 준 혐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종진 부장검사)는 22일 남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거액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양수 장성군수의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군수 부인은 최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남편을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의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밤 김 군수의 부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을 체포한 뒤 김 군수 부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석방됐다. 한편, 광주지법은 23일 오전 11시 김 군수 부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지율기자 dok2000@

취객 구조 경찰에 “해경이나” 행패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하려 온 경찰관들을 향해 “야, ××야. 니들이 해경이나?”라며 마구 욕설을 내뿜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1시10분께 술에 취해 광주시 남구의 한 주택가에 쓰러져 있던 유모(45)씨는 “주택가에 쓰러진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깨우던 경찰관 나모(39)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마구 때린 데 이어 112 순찰차의 싸이러 미러 등을 마구 발로 차서 깨뜨렸다는 것.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하지 않는다”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 /김형호기자 khh@

★신축 원룸 (전대상대 2분 거리)

- 용봉지구, 미래도 APT 입구 코너
- 신축 4층, 룸 21개
- 1층 상가 2칸, 4층 고급주택
- 엘리베이터 완비, 전체 대리석 시공
- 월수입 900만원(년 1억800만)
- 매가 11억5천(보 1억, 용 4억)

★신축 원룸 (전대후문 2분 거리)

- 흥중동, 신축 4층, 룸 12개
- 1층 점포 1칸, 원룸 10개, 4층 주택 1개
- 월수입 450만원, 매가 6억5천

★나주 이창동 원룸 (4층)

- 룸 19개, 월수익 570만
- 매가 4억2천(용 1억, 보 3천만)

원룸,상가,오피스텔 매매 (주)대신 010-6670-9800

★수완지구 상가(3층)

- 신한은행 뒤, 모아엘가 APT 상가 맞은편
- 주위 6000세대 APT 밀집
- 4층 건물중 3층, 85P
- 월수익 200만(년 2400만 수익)
- 매가 3억5천(용 2억5천, 보 3천)

★첨단지구 상가 2층, 62P

- 부영 APT 맞은편, 오션스파 2층
- 월수입 80만(1년 1760만)
- 매가 1억7천(용 9천, 보 1천)

★원룸형 오피스텔(쌍촌동)

- 윤천역 1번 출구 3분거리
- 원룸(10P)-매가 3400만(보 200만 월 27만, 용 1천)
- 원룸(11P)-매가 3500만(보 200만 월 27만, 용 1천)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

남 / 직원 모집 남 : 45세이하, 사무 및 기타
경매 관심 있는 분 환영 여 : 45세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 / 급여는 상담후 결정